

# 환경문제 · 일자리 해결 '초점'

## 익산시, 미세먼지·노인·청년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 1103억원 편성

익산시가 제2회 추경예산을 환경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현안사업 대응에 초점을 맞춰 11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정부추경 대응사업인 미세먼지와 노인 및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에 예산을 편성해 정부의 예산투입 효과가 신속히 지역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사업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관련 사업 100억원, 대기편승 약취저감장치 구입 2억여원 등이 편성됐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32억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20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30억 원, 공공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익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도 적극 투자한다.

홀로그램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5G기반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4억원,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영역에 2억여원을 반영했다.

더불어 노인사회활동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28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약 7억원 등 일자리 창출에 35억원을 반영해 인구증대 효과도 도모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시는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안인프라 방범용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및 각종 도로부속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실 및 창고매입 10억원, 펜싱이카데미 건립 25억원,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를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약 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258억원을 편성해 지방채를 재로화할 계획이며 청사건립기금 100억원 적립으로 향후 청사건립 기반을 마련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과 소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꼼꼼히 챙겼다"며 "정부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가 지역에 산재돼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통합·관리 체계 구축 논의

**익산, 미래농정 자문단 정례회**

익산시가 지역에 산재돼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19일 미래농정 자문단 정례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례회는 정명채 명예농업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은 생산 중심적인 농민의 농업에서 소비자와 함께 상생하며 능가 소득을 향상 할 수 있는 분야로 익산시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농촌 자원을 가진 도시인만큼 지속적인 협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익산시가 지역별로 산재

## 맞춤형 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추진

### 군산시, 오룡동 일원에 영구임대 150호·복지시설 2022년까지 완공 계획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고령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공공임대 복지 주택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고령시대에 걸맞는 체계적인 공공임대 복지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대간의 갈등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노인기구에 적합한 주택 및 복지시설을 갖춘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오룡동 900-40번지 일원에 사업비 189억원을 투

입해 영구임대 150호(전용면적 26㎡)와 복지시설(연면적 1,500㎡)를 함께 갖추게 되며, 올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노인취약계층 주거비용이 매우 높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을 지난 2006년부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따뜻한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힘써오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해방동 희망투아파트(483세대)는 60세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세

대가 대부분으로 안정적 주거 제공과 아울러 지난 6월부터 단지 내에 전담직원을 현장 배치해 각종 민원의 현장 즉시 처리와 함께 입주자의 주거생활을 살피는 원스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주자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포용적 주거복지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노인케어안심주택 확충 등 촘촘하고 질 높은 지역사회 통합 주거복지 공공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관광 인프라 활용방안 마련" 정현을 시장, 간부회의 개최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역에 구축된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1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돼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교도소 세트장과 합라 한옥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관광안내데스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눈에 띄지 않는다"며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소를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 시장은 익산역 관광 안내데스크도 매표소 인근 중앙통로로 이전 설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안내데스크가 많은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구축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시내버스 164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천 100만 원을 투입해 무선 인터넷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사업 대상인 버스 60대에 무선 인터넷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104대에 대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탄력

### 정부 사전 적격성심사 '적격' 판정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6일 정부의 사전 적격성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력프로젝트 14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간 정부의 사전 적격성심사의 부적격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재심사시 적격 의견으로 판정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

다고 밝혔다.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는 총사업비 1,200억원으로 경매장, 품질인증센터, 전시장, 수출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이 입주하여 중고차, 중고건설기계, 특장차 등과 함께 부품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중고품에 대한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형 수출단지조 조성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번 사전적격성 심사 의견을 반영해 2020년에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SPC설립 등 사전 준비단계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2021년에 착공 후, 202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서면 연간 228억원의 경제효과와 436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군산항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2만대 이상 늘어나는 등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으며, 금후 준비 단계부터 내실을 다져 군산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도시 디자인' 대학생과 함께 만든다

### 원광대 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익산 공공디자인 구축 의견 나뉨

익산시 공공디자인에 지역의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의 도시디자인을 설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익산 디자인 위크(Iksan Design Week)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에서 열린 프로그램은 방학 중에도 많은 디자인관련분야 학생들이 참여해 공공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강의를 시작으로 익산시에서 추진 중인 경관·공공디자인·도시재생사업의 디자인분야에 대한 사업내

용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참여한 한 학생은 "그동안 디자인분야에 대한 행정 경험 기회가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을 접하고 지역의 도시 디자인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도 도시재생과장은 "대학생들의 무한한 아이디어와 젊은 목소리가 도시디자인 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등 향후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